

道-道문화의전당 'DMZ 2.0 음악과 대화' 조직위 출범

## 비무장지대, 희망과 미래를 품다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은 23일도 전당 회의실에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DMZ (Dream Making Zone)으로 재조명하는 'DMZ 2.0 음악과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조직위원회를 구성,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

'DMZ 2.0 음악과 대화'는 포럼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복합예술문화 프로젝트로,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임진각평화누리와 판교 등지를 무대삼아 미래·환경·문화·경제·교육·소통 등 다채로운 주제로 새로운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을 통해 원만한 프로젝트 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계획된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직위원회 정관승인 및 집행위원·사무국 구성을 승인해 'DMZ 2.0 음악과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조직위원회는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인사들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남경필 도지사가 조직



L 2.0 음악과 대화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맡고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필구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포럼 전문가),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이재정 도교육감, 민경원 도경제단체연합회 총장과 정재훈 도문화의전당 사장 등 조직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고문으로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을 추대했다.

도 전당 관계자는 "이번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된 'DMZ 2.0 음악과 대화' 프로젝트는 앞으로 포럼과 콘서트 등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해 범국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성기자

# 道북부 '족집게 개발'이 답이다

韓銀, DMZ 접경지 발전방향 세미나

연계·성장가능·잠재성 등 따져

지역 특성별 3개 협력벨트 구축

제조업·新산업·관광 특화 개발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접해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벨트별 경제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형화하고 지역 간 협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23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한국은행 창립 65주년을 기념해 '경기도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 기술혁신 활성화 및 인접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홍배 한양대 교수가 '접경지역의 특성별 유형구분과 경기도와 강원도의 협력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와 이미주 한국은행 경기본부 과장, 박종필 한국은행 강원본부 과장이 공동 연구한 주제발표는 ▶협력벨트1 김포시·파주시 ▶협력벨트2 연천군·철원군·화천군 ▶협력벨트3 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3개 협력벨트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역생산제품에 대한 지역 내·외

부 수요가 작지만 관광에 대한 외부지역에서의 수요는 높은 수준"이라며 "3개 협력벨트는 지역의 연계성(지역의 물동량), 성장가능성(지역 수출량), 잠재성(고령화 및 대출인구 비율), 안정성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접경지역은 김포와 파주의 제조업을 제외하면 지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선도산업이 거의 없는데다 고령인구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고 대출이상 인구비율도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협력벨트1은 전기전자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해야 하며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완화,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력벨트2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협력벨트3은 관광산업 활성화가 요구되며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로 기대되고 있다.

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은 '경기도 기업 기술혁신 결정요인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김기호 한국은행 차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송위섭 아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기업 기술혁신 지원과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태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관계·금융계·학계언론계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병근기자

22.7 X 20.0 cm